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현실적인 문제

손춘섭(전남대) · 김천갑(서남대) · 김광희(광양보건대)
송인동(호신대) · 박재익(고신대)

Son, Chunseop; Kim, Chungab; Kim, Kwanghee; Park, Jaeik; Song, Indong. 2002. Issues in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ment for Foreign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3), 193-21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port the practical problems that have been came out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of the development of a textbook of the Korean language for those who want t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irst, we set up a series of linguistic functions and contents which are appropriate to the education goals of the textbook. To help learners acquire the language by communication in the target language, we set a series of guidelines: communicative approach, learner-centered activities and multimedia-based. We describe many practical problems inside or outside the textbook that come out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textbook and its supplementaries. With respect to the textbook development, some problems of syllabus design, topics and language functions, illustrations, songs and musical composition, vocabulary, grammar, selection of cultural elements, conversational contexts and writing a teacher's manual are discussed in this paper. With respect to other practical things, some problems of the profitability of online education, utilization of multimedia, recording, filming, collaboration among people are discussed here. We discuss these things on the basis of our authentic experiences in the proj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of the Korean language for young foreign language learners. We have tried to offer our own alternative solutions for some of them.

주제어(Key words): 한국어(Korean language), 교재개발(textbook develop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 멀티미디어(multimedia)

1. 머리말

최근 여러 국가나 민족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짐으로써 세계는 경계 없는 지구촌 실현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듯하다. 이렇게 국가나 민족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인

들의 관심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 도처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¹⁾,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이를 활용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²⁾.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쉽고 바르게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바람직한 교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최근의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대한언어학회 산하 한국어교육연구회에서는 인터넷 벤처기업인 (주)훈이름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를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본고는 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외국인을 위한 앞으로의 한국어 교재 개발과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교육연구회의 교재 개발 배경과 방향, 교재의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교재 내적인 측면과 교재 외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려고 한다.

2. 교재 개발 배경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터넷 콘텐츠 사업이나 I.T.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의욕

1) 유영미(2001)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미국 내 크고 작은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있으며, 정식 어학 프로그램만도 120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김영아(2000,2001)에 의하면 호주에도 1990년 이후로 여러 대학에 한국학과가 설립되어 있다고 한다. 또 현원숙(2001)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는 55개의 한글학교가 있고, 10개 대학 이상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거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지역 외에도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국어를 교육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석훈 외(2001)의 보고에 의하면 검색엔진 알타비스타를 통해서 'Korean Language Education'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한 결과가 30만 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23 개의 주요 한국어 교육 사이트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전형식(2001)에서는 일본어 교육 포털 사이트 50개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을 활용한 언어 교육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 매우 높았다. 이런 추세 속에서 2001년 6월 (주)훈이름라는 벤처기업이 대한언어학회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대한언어학회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학자들을 모집하여 영어학자 3인, 국어학자 2인으로 구성된 한국어교육연구회를 발족하여 (주)훈이름과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주)훈이름은 이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rean-edu.com>)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여 한국어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당시 (주)훈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육되고 있던 내용은 ‘자음과 모음 익히기’, ‘단어 익히기’, ‘동화 구연’, ‘단어 맞히기 게임’ 등으로 한국어 입문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주)훈이름은 보안 솔루션 개발과 같은 I.T. 분야의 기술력이 있었으므로 교육 내용에 대한 웹상에서의 구현 방식이나 멀티미디어 활용도에 있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와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한국어 교육 내용의 체계성 결여, 단계별 교육 내용 미비,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 결여, 전문 인력 부족, 자금력 부족, 장기적인 비전과 경영 마인드의 결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한언어학회의 한국어교육연구회와 (주)훈이름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향후 양자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사업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계기로 2001년 8월 (주)훈이름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이트 운영’이라는 콘텐츠로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정식 벤처기업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연구회의 5인의 교수들은 (주)훈이름 부설 한국어 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교수연구팀이라는 명칭으로 교재 개발에 착수했다. 그 후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수, 입문용 CD-ROM ‘Perfect Korean’에 대한 감수, 중국어 사이트 개발 지원, 학생용 교재 *Let's Chat in Korean 1*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3. 교재 개발의 방향

3.1. 기존 교재 분석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은 우선 기존 교재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의 교재들의 내용과 체제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의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존에 출판된 교재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에서 찾아지는 몇 가지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3.1.1. 문법 지식 중심

문법 지식 중심이란 교재가 문법 지식 중심의 언어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문법 지식 중심 언어 교육관은 언어를 통일적인 문법 구조물로 보고, 전형적이고 규범적인 언어 유형을 중시하며, 학습 성취의 기준을 문법적이고 정확한 문장의 습득으로 본다. 또한 학습 언어와 일상 언어를 동일시하지 않고 학습자의 잘못이나, 비문법적인 문장의 발화를 오류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Nunan, 1988).

그동안의 한국어 교재들에 대한 다른 평가에서도 문법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관이 나타나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곧 “문법을 단계화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백봉자, 1999).”거나, “읽기 자료의 구성이 문법 자료에 크게 치우쳤다(노명완, 2001:16).”거나, “문법, 문형 중심의 문법 번역식이나 반복과 모방 중심의 문형 연습을 강조했다.”는 등의 언급은 기존 교재들이 문법 지식 전달에 치중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분석한 교재들 가운데에도 문법 지식의 전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의 ‘제1과 인사’ 부분의 내용 구성을 보면 문법 지식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총 20쪽의 내용 가운데 본문 2쪽, 문화 설명 1.5쪽, 학습목표 등의 1쪽을 제외하면 나머지 15쪽 이상이 모두 어휘 설명, 문법 설명으로 되어 있다⁴⁾. 이러한 구성은 교재 내용을 문법 지식의 설명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자칫 학습자의 흥미를 빼앗고, 담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저하시키며,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

3) 기존의 교재들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의 평가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물론 기존 교재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장점 및 유용성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본고는 기존 교재들이 갖고 있는 각기 나름대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4) 이러한 교재 구성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통합성을 중시하고, 또 워크북이나 교사용 지도서 등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문에 문법 지식에 대한 설명이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재의 체제에 대한 새로운 양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Yeon, Jae-Hoon 외(2000) *Elementary Korean*에서도 각 과목에 문법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세심하게 전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교재를 학습할 때면 과제 상황에 알맞은 언어 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기타 국내에서 발간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물론,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 문법 지식의 습득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법 지식이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교재들이 문법 지식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언어 교육을 완성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황인교(1998)이 기존 한국어 교재들에 대해서 “담화 단위와 상황 맥락에 대한 훈련이 미흡하고, 문형과 문법이 중시되는 교재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형태 중심의 구성과 문장 단위의 반복 훈련으로 담화 차원의 숙달성 교육이 부족하고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용하는 유의적 맥락도 결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3.1.2 사회 문화 학습의 결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문화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바람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기존 교재는 많지 않을 뿐더러 문화 학습에 대해서 고려한 교재일지라도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이 꾸며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대 한국어 교재인 <말이 트이는 한국어>의 경우 각 과를 활동(Activity) 중심으로 꾸미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소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Integrated Korean>의 경우도 본문의 이해를 돕는 문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교재들에서의 문화 내용은 단계별로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거나, 본문 내용과는 별도로 다루어짐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문화 내용이 주로 전통 문화에 대한 것이거나 지나치게 교훈적인 것(장경은, 2001)들이 대부분이다. 곧 기존의 교재들에서는 문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차원에서 학습 내용과 융화되는 바람직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학습

동기의 상당 비율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통계(백봉자, 1999)를 참고 하더라도 문화 학습이 언어 학습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본다.

3.1.3 교사 중심의 닫힌 체계

기존 교재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교사 중심의 닫힌 교재 체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재는 교사 일방의 주입식 교수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재의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는 것으로 학습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본다. 곧 교재가 교사 중심의 이상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고, 표준화를 지향하며, 규범성, 균질성 중시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설명과 분석이 수업의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다(최현섭, 1997). 이런 교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며, 모범적인 교사에 대한 모방 학습만이 강조될 위험성이 있다.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의 1999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교수 요목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강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 ‘수업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국내 학습자들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고, 국외 학습자들의 경우는 소그룹 활동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학생들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어떤 교수법에 적합한 형식으로 꾸며져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3.1.4 종이 매체 중심

금세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인터넷과 같은 발달한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외국어에 대한 학습 환경이 점점 매체 의존적인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교재들의 문제점은 학습 내용을 멀티미디어로 재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시각적인 측면과 청각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유로 현장감 넘치는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추상적인 글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이나 이미지가 내용의 이해와 학습과 기억에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교재를 통해서 문화와 담화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

은 기존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교재들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⁵⁾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바탕 위에서 교재 제작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2. 교재 개발 방향

3.2.1. 교육 목적과 대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을 정하는 것이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좌표가 된다. 우리는 한 한국어 교재 제작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높이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교육의 대상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하였다.⁶⁾ 우리는 이와 같은 교육 목적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한국어 교재의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하고, 이를 원칙으로 하여 교재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3.2.1. 의사소통 중심 교재

의사소통 중심 교재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주목하여 교육의 목표를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두는 것이다. Hymes(1972)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하게 언

5) 기존 교재에 대한 분석은 교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들까지 좀 더 세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노명완(2001)에서 언급한 기존 한국어 교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는 그런 점에서 참고해 볼 수 있다. (1) 교재 개발의 이념이나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2)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어느 활동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3) 읽기 자료 구성이 문법 자료에 치우쳐 있다. (4) 교수, 학습 방법의 안내가 미진하다. (5) 학생들의 동기 유발 장치가 미흡하다. (6) 연습 활동들이 이론적 기반 위에서 통합적이며 유기적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7) 학습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6) 후술하겠지만 우리는 교재를 총 8권으로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했다.

어를 사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화자의 직관적 숙달성⁷⁾이라고 보았다. 곧 의사소통 능력은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말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Widdoson(1979)도 제2언어의 교육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황진영, 2001).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는 주된 교수법으로 의사소통적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을 받아들인다. 의사소통적 접근법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특정 상황 안에서 인간 상호간에 의미를 전달하고 협상하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을 언어의 사용법이 아닌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간주하거나 맥락화된 상황에서의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문법, 구조 등의 언어의 형태적 측면을 언어 교육의 일부로 보고, 기능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삼으며, 문법 지식은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유추하도록 유도한다.⁸⁾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는 문법이나 구조와 같은 언어학적 측면들은 언어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며, 사회언어학적인 요소, 담화 요소 등이 주된 교육 내용이 된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일관성이 있는 의사소통 활동의 전개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은 언어 학습의 네 가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통합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또한 실제의 담화 상황과 동일한 학습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성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배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재가 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문화 지식이다.

7) 숙달성이란 어떤 언어를 이용해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실생활에서의 언어 수행에 기반을 둔 언어 능력이다. 이전의 의사소통 능력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아직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의 차원에서 머무는 반면, 숙달성은 실생활에서의 언어 수행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숙달성의 개념을 가장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숙달도 등급 체계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숙달도를 초급(Novice)-중급(Intermediate)-고급(Advanced)-최상급(Superior)의 주요 4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전체를 9등급으로 나누었다.

8) 의사소통 접근법에 대해서 언어의 형태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의미를 중시하고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중시하여 언어의 부정확한 사용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한 교수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언어가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양태를 담고 있는 도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문화 학습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문화 지식이 잘 반영된 교재가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2.2. 학습자 중심 교재

학습자 중심 교재란 학습자들이 교재의 내용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한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교재를 말한다. 이러한 교재를 이용할 때 교사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도록 꾸며진다. 곧 교사는 질문 등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자극해 준다거나, 학습자가 풀어야 하는 과제를 시연하거나, 교육 내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한다거나 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황진영, 2000).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교재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직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실제 교사가 없는 온라인 상에서도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에 제한점이 없도록 교재가 꾸며져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재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교재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화 상황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비록 학생이 자학·자습하는 경우일지라도 도와주는 교사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학습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녹음기나 시디롬 등 보조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의 간접 체험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특히 지시문이나 게임,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사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해 가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3.2.5. 멀티미디어 기반 교재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염두에 두는 교재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 쓰일 교재라고 할지라도,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교재는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화 상황을 현장감 있게 도해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도해를 위해서는 교육과 도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일러스트레이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어의 현장감 있는 학습에는 청각적인 도움의 중요성도 크다. 학습

내용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노랫말과 음악의 지원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언어 습득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고급 단계의 교재에도 적절한 음악과 학습 내용을 결부시키는 노랫말의 필요성은 초급 단계 못지 않다. 학습에 청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녹음하는 성우나 가수의 선택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기반 교재가 되는 데에는 게임이나 퀴즈의 활용, 피드백이 가능한 학습용 게임의 개발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에서는 교사가 없더라도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아서 학습 성취도를 따져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3.2.4.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교재

수요자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교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재의 외관, 인쇄 방식, 부수적인 미디어 등의 사용 편의성, 교재의 도해, 녹음과 성우 및 배우에 대한 호감, 캐릭터의 친근감, 판매 방식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가 좋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성공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재에 상품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적 검증이나 체계적 실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 대상 학생들이 결정되면, 그곳에서 일정한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철저한 수요 조사와 수요자들의 요구의 반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종적, 국가적 배경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와 그에 맞는 내용의 채택 및 교수법의 개발이 뒤따른다면, 이 교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재로서 개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교재의 구성

여기서는 우리가 제작한 교재의 실례인 *Let's Chat in Korean I*⁹⁾의 구성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리는 교재를 ‘학생용 교재,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녹음테이프, 시디롬, 사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룬다⁹⁾. 이러한

9) 이런 교재판을 열린 교재판이라고 부른다. 열린 교재판에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전이성을 중시한다. 교재는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수업은 학습 과제 수행보다는 목표 달성 자체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 및 불완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교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교육을 두루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온라인 교육용일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코스웨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코스웨어는 설계 및 개발, 교수-학습의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효율화하고 교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도 CAI (Computer-Assisted Instruction)와 같은 개념의 도입이 활발한데,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성패는 교사를 대신하는 교수법의 제공에 있다고 본다¹⁰⁾. 이런 점에서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정보의 검색과 학습 과정에 대한 관리 등의 측면이 잘 고려된 코스웨어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는 교재의 총 구성을 8권으로 구상했다. 이 중 1, 2권은 초급, 3, 4, 5권은 중급, 6, 7, 8권은 고급으로 꾸미려는 계획이다. 각각의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학생용 교재,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녹음테이프, 시디롬, 사전이 포함된다. 아래에서 우리가 개발한 *Let's Chat in Korean 1*의 개발 원칙과 학생용 교재의 구성, 그리고 개발 계획 단계에 있는 교사용 지도서와 기타 교재의 구성에 대하여 그 원칙만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4.1. 개발 원칙

이 교재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 학습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성을 지닌다. 자학 자습이나 온라인 상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의 학습도 가능한 범용성을 지니도록 한다. 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하나의 교재 안에서 통합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후 개발될 상위 단계의 교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학습자들의 요구와 목표를 고려하고, 실제 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한 자료마저도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교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최현섭 외, 1997).

10) 컴퓨터는 학습 측면에서 크게 '교사 대체 유형'과 '도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 대체 유형'이란 컴퓨터가 교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도구 유형'이란 컴퓨터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김영아, 2001). 온라인 상의 외국어 교육은 컴퓨터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록 한다. 상호 활동적, 협력적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각적인 디자인과 음악 및 노래에 대한 배려로 멀티미디어화 및 온라인 교육에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습활동과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문화와 함께 현재 사회 생활의 예절, 동작언어, 대화의 예절 등을 학습시킨다. 단원 내에서도 기초 학습-심화 학습-보충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어휘 설명, 문법 설명, 문화 설명 등 교재 내용 이해에 필요한 일체의 내용 및 교수법에 대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자세히 다루어 교사가 의사소통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식들을 전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반드시 교사용 지도서, 쓰기 중심의 워크북, 테이프, 시디롬, 사전 등을 함께 출판한다.

4.2. 학생용 교재

*Let's Chat in Korean 1*의 주제와 기능 테이블 및 목표 문법, 문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기능	목표문법	목표문화
소개	소개하기	나, 저, 제	소개법
	질문-대답	-에요/예요, -입니다.	
인사	안부 묻기	안녕,	생활상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질문-대답	안녕하십니까?	
사물	모양 말하기	이, 그, 저	사물
	색깔 표현하기	이 것, 그 것,	지시법
	설명	저 것	

이러한 내용의 학생용 교재 단원 구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곧, 단원 구성은 담화 상황에 따른 주제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원 학습 내용의 제시는 학습자들이 단원의 학습 내용을 공부해 가는 가운데 내용의 전체적 열개를 알게 한다. 그리고 단원 구성은 “듣기-듣고 따라하기-말하기-노래로 배우기-좀 더 배우기-직접 해보기-연습하기-알아맞히기”의 기본 구성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은 한 단원 안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성을 지향한 것이다. 문법이나 문화 및 기타 지식은 담화 상황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지도록 한다. 담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반드시 음악과 노랫말을 삽입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테이프나 시디롬에서 담화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독학 자라도 쉽고 재미있게 배워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교사용 지도서와 사전을 통해 담화 상황과 관련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지식적인 면은 가급적 교사의 안내에 따른 직접 체험이나 멀티미디어 의한 간접 체험에 의존하도록 한다.

4.3. 교사용 지도서

목표 문화에 대한 설명, 목표 어휘 및 문법에 대한 설명, 시간 당 교수요목에 대한 설명, 수업 보조 자료의 활용법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수업 실례가 포함하여 교사가 지도서의 지침만으로도 수업 준비가 수월하도록 도와야 한다.

4.4. 기타

워크북은 학생용 교재의 반복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쓰기 중심의 학습서이다. 워크북을 통해 학생들이 익힌 내용을 완성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시디롬은 기본적으로 교재 내용을 그대로 구현한다. 또한 시디롬의 특성에 알맞은 멀티미디어를 구현한다. 동영상이나 게임을 포함시킨다. 다음으로 녹음테이프는 교재를 학습자 개별적으로나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녹음한다. 음악 역시 학습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녹음한다. 끝으로 사진은 각 교재에 나오는 어휘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보조 학습 도구가 되도록 충분한 용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교재 개발의 현실적 문제

5.1. 교재 내적인 문제

5.1.1. 교수요목 설계의 문제

광의의 교수요목은 교육 과정 중 학습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교수요목 설계란 교육 목표, 내용(주제 및 기능), 학습 내용에 대한 계획 및 학습 활동이나 학습 과정의 목록을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보통 교수요목의 설계에는 세 가지 방식이 거론된다(Wilkins, 1976). 문법 중심, 상황 중심, 의미-기능 중심의 교수요목이 그것이다. 문법 중심의 교수요목은 학습자들에게 문법적 요소의 일부를 제시하여 이를 알게 하면 특정 언어의 학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문법과 구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교수요목이다. 상황 중심의 교수요목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되므로 언어는 그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예견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된 교수요목이다. 의미-기능 중심의 교수요목은 언어를 의미 범주와 기능 범주로 나누어 기능적 표현에 수반되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하는 교수요목이다. 이들 교수요목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유형을 채택해서 언어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학습자에게 거부감 없이 외국어를 학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이 추천되고 있다. Watson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학생이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과 관계되는 상호 지원적 신념과 교수 전략 및 경험’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Newman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교육 과정에 대한 신념 체계, 즉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고까지 정의를 내린 바 있다(한국어 세계화 추진위, 1999).

*Let's Chat in Korean 1*의 교수요목 설계는 상황과 의미 기능을 우선시하고, 문법적 요소를 부수적인 것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담화 내용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같도록 꾸미고, 과제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설계되었다.

5.1.2. 주제 및 기능 설정의 문제

주제 및 기능의 설정은 목표 어휘 및 목표 문법, 목표 문화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제와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휘, 문법, 문화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안경화 외(2000)의 설문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 (1) a. 개인 신상, 주거 상황, 직업, 여가 시간, 여행, 대인 관계, 건강, 쇼핑, 음식과 음료, 공공시설, 날씨, 한국
- b.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학, 한자

위 a는 저급 응답자들이 답한 내용이고, b는 고급 응답자들이 답한 내용이다. 또 응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표현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

- (2) a. 정보를 구하거나 알림: 확인하기, 요청하기, 설명하기, 비교
- b. 지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알아냄: 동의/반대하기, 거절하기
- c. 감정을 나타내거나 알아냄: 좋아함/싫어함의 표현, 불쾌함의 표현
- d. 대인 관계: 인사하기, 소개하기, 헤어질 때 인사, 음식 권하기

교재의 주제와 기능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상과 같은 설문 조사를 통한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Let's Chat in Korean 1*의 경우에는 국내외 다른 교재들의 주제 및 기능 테이블과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와 기능을 정하였다.

5.1.3. 목표 어휘 선정의 문제

교재 편성 시 어휘 선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사용 빈도가 높고 필수적인 어휘를 선정하여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중심의 기초어휘를 선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하는 주제와 기능에 따라서는 빈도수만을 고려하여 어휘를 선정할 수는 없다. 어휘 선정 작업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Let's Chat in Korean 1*의 목표 어휘 설정의 문제는 우선 빈도수가 높은 기초 어휘를 학습 대상을 기준으로 고려한 다음 주제와 기능 및 과제 수행 상황에 따라 다소 어려운 어휘라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하였다.

5.1.4. 목표 문법 선정의 문제

Canale과 Swain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파악한 바 있다. 여기서 문법적 능력이란 어휘,

발음 규칙, 철자법, 단어 형성, 문장 구조 등의 언어학적 기호를 정확히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을 생성해내는 능력을 말한다(김정숙, 1998). 그러나 이러한 바른 문장을 생성하는 문법 능력은 다른 능력들과 조화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법적, 의미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문장이라도 사회언어학적 상황에서 용인 가능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문법 능력은 다른 여러 능력들과 동시에 향상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Let's Chat in Korean 1*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목표 문법을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어의 모든 문법 체계를 그대로 다 포함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능, 담화로서의 문법 규칙을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표 문법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용 빈도수에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난이도에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적었다. *Let's Chat in Korean 1*의 목표 문법의 선정에는 주제와 기능이 고려되었고, 다른 교재들에서 동일한 기능과 주제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는 문법 사항들을 토대로 정하였다.

5.1.5. 목표 문화의 문제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언어 교수의 목표로 설정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등장하면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언어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결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목표 문화는 학습 수준과의 고려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급 수준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곧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사, 물건 사기, 음식 주문, 전화, 우체국 이용, 취미 활동, 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이런 수준에서 습득해야 할 문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2) 초급 과정 학습자의 목표 문화의 예

- a. 한글/한국의 자연 환경, 의·식·주 생활

- b. 화폐, 통신 및 교통, 공공시설의 이용, 여행 및 여가
- c. 한국인과 교제
- d. 가정, 학교, 직장 등의 풍속(생활상)
- e. 가족 구조, 친척, 호칭
- f. 한국어 어휘, 고유어와 한자어, 경어 체계, 인사, 식사 예절
- g. 계절과 날씨

(2) 단계별로 학습해야 할 문화 내용(장경은, 2001)

- a. 초급: 인사, 소개, 언어 예절/지리/기후/가족 관계/식사 예절/식습관/주거 생활/신체 언어/일상적 행동 유형/ 문물, 풍경
- b. 중급: 여가 생활, 오락 문화/ 교육제도, 학교생활/ 개인별, 집단별 갈등/ 문학 작품/사회제도/명절 풍습/속담, 관용어
- c. 고급: 역사적인 사건/인물/문화유산/종교/예술/가치관/세계관/문화 비교/정치·경제·사회 문제/방언의 차이/언어 변화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 교육과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 내용과 교수법 의 개발에 아직도 미진한 면이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문화를 교육하는 데에는 설명, 실물 사진, 그림, 비디오 활용, 체험, 역할극, 다른 나라 문화와 비교하여 말하기, 견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Let's Chat in Korean 1*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의사소통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이루는 데에는 적절한 교수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1.6. 화계 설정의 문제

성기철(1999)는 20세기 후반 한국어의 청자대우법의 화계가 ‘합니다’체와 ‘해라’체, ‘해요’체와 ‘해’체의 체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20세기 들어 줄곧 그 세력이 확산되어 온 ‘해요’체와 ‘해’체는 계속해서 한국어 화계 체계의 변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외국인을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구성에서 제일차적인 난관이 되는 것은 화계의 설정이다. 어떤 단일한 화계를 설정하여 교재 전체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앞서와 같은 네 가지 화계를 적용하여 네 가지 방식의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재 개발의 초기에 부딪히는 가장 결

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Let's Chat in Korean 1*에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화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는 교재의 정신과도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참여한 학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의 논의가 필요했다. 그 결과 “화계가 인국어권 학습자들에게 다소 익숙지 않다는 점, ‘해요’체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화계라는 점, 교수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화계를 교육할 수 있다는 점, 낮은 단계에서 ‘해라’체를 잘못 익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상의 오해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재의 중심 화계로 ‘해요’체를 채택하였다. ‘해요’체를 근간 화계로 하더라도 어른이 어린이에게 ‘해요’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화계 선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별도의 의사소통 상황을 정하여 어른이 아이에게 ‘해라’체를 쓰는 상황을 체험시키는 교수법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합니다’체는 ‘해요’체와 동일한 층위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5.1.7. 도해(illustration)의 문제

의사소통 능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교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소통 상황을 시각적으로 실감 있게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과 학습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해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도해와 텍스트를 조화시키고, 교재의 심미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또 담화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개성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초급이나 어린이 교재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Let's Chat in Korean 1*에서는 독창적인 도해와 개성 있는 캐릭터의 구현을 위하여 전문 도해가를 교재 개발 초기부터 참여시켰다.

5.1.8. 작사 작곡의 문제

기존에 있는 곡에다 가사를 실거나 기존의 노랫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의 의도를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한국어의 교육에 있어서 노래의 역할을 인국어 교육에 비해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음악과 노래는 멀티미디어 기반 교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Let's Chat in Korean 1*에서는 교재 내용의 전개에 필요한 모든 음악과 노랫말을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다소 일반화되고 저작권 시비가 없는 노랫말의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음악을 위해서 전문 작곡가를 교재 제작에 참여시켰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노래를 불러보게 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했다. 노래는 세심하게 녹음하여 다른 멀티미디어 교재에도 포함시키려고 한다.

5.1.9.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

이해영(2001)은 다음과 같은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교사용 지침서는 주교재인 학생용 교재의 효과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수 철학, 자료와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며, 지향하는 교수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둘째, 학생용 교재의 범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재의 범용적 사용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용 지침서에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사용자인 교사가 쉽게 읽고 짧은 시간에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언어와 문화 정보, 교실 활동 정보 등을 포함하여 덜 숙달된 교사, 비원어민 교사뿐만 아니라 숙달된 교사도 학생용 주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 중심의 개념과 원리에 입각해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화, 개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학습 자료와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교수 자료는 교사에 의해 변형이 용이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Let's Chat in Korean 1*에서는 교사용 지도서의 집필 원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곧 교재의 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교육의 일반적 원리와 초급 과정에서의 최종 학습 목표, 교재의 집필 의도 및 구성 원칙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 진행 순서에 따라 지침서의 내용을 구성한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제시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도서를 참고하면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절차와 방법, 소요 시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또한 목표 어휘, 목표 문법, 목표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보충 자료

를 제공한다. 수업 보조 자료 및 기자재의 활용에 대한 내용과 교사가 교육 중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학습자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5.2. 교재 외적인 문제

5.2.1. 온라인 교육의 수익성 문제

온라인상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단기적인 수익성이 낮다. 영어처럼 많은 수요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의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며,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의 규모와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의 온라인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점진적인 투자와 회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재를 출판하기 전에 대상 국가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수업을 해 보고 효과를 검증한 뒤에 출판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 함께 시디롬, 테이프, 교재 등의 판매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교육에 알맞은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여기에 대한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규모 벤처기업이 단기적인 수익 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한다.

5.2.2. 멀티미디어 활용 문제

최근의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수의 학습자가 동시에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당연히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은 반복 연습을 가능하게 해주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억을 도와주고 망각을 줄여 주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전이효과가 뛰어나며, 특정 부분에 대한 반복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를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거나 저장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라헤민 & 우인혜, 1999).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저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재 저작에 알맞은 코스웨어를 개발해야 하며, 멀티미디어 저작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별 학습을 유도할 수 있고, 학습 내용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저장과 검색이 자유롭도록 해야하며, 평가 영역을 강화하고, 흥미로운 피드백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의욕을 증대시킬 학습용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5.2.3. 녹음 및 녹화 문제

교재 내용의 녹음과 녹화는 학습자의 학습을 보조하고, 학습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녹음·녹화된 내용은 자학자습자나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대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재 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녹음 및 녹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든다면, 먼저 교재를 녹음과 녹화에 알맞도록 대본화해야 하며 표준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성우와 배우가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성우와 배우는 발음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자연스러운 연기를 유도하여 의사소통 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녹음, 녹화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5.2.4. 조직 관리의 문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조직의 관리의 사업의 지속성과 성패에 중요한 문제이다. 교재 제작에 관계하는 제반 인력의 효율적인 참여와 노력이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 교재 및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의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교육 이룬을 세우는 인력과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과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성우, 배우, 작곡가, 도해자 등이 교재 개발의 원칙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있어야 한다. 지원 분야의 인력들 또한 교재의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회원 관리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자주 이동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후생 복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철저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줄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본고는 그러한 사업 수행 과정과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우리는 먼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 교재들의 성격을 분석했다. 기존 교재들은 문법 지식 중심, 사회 문화 학습의 결여, 교사 중심의 단힌 체계, 종이 매체 중심이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사업에 알맞은 교육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교재의 개발 방향을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 학습자 중심의 교재, 멀티미디어 기반의 교재,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교재”를 만드는 것으로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따른 교재로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교재의 개발 과정에서는 교재 내적, 교재 외적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피력했다. 교재 내적인 문제로는 ‘교수요목, 주제/기능, 어휘, 문법, 문화의 선정, 화계 설정, 도해, 작사 작곡,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교재 외적인 문제로는 ‘온라인 교육의 수익성 문제, 멀티미디어 활용 문제, 녹음 및 녹화 문제, 조직 관리의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우리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으며,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아. (2001). 호주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7-60.

- 김정숙. (1998).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어 교육*, 9(1). 95-112.
- 김천갑, 김광희, 박재익, 손춘섭, 송인동, 김미숙, 김경화. (2001). *Let's Chat in Korean 1*. 출간 예정.
- 노명완. (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론.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25.
- 라혜민, 우미혜. (1999). 한국어 교재의 효율적 개발 방향. *한국어 교육*, 10(2). 95-115.
- 백봉자. (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0(2). 1-16.
- 성기철. (1999). 20세기 청자 대우법의 변천. *한국어 교육* 10(2). 17-45.
- 안경화, 김정화, 최은규. (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1(1). 67-83.
- 유석훈, 최재웅, 이원규. (2001).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영어 교육 웹 사이트 현황.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3-373.
- 유영미. (2001).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5-84.
- 이혜영. (2001). 교사용 지침서 개발의 원리와 실제.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6-117.
- 이화여대언어교육원. (1998, 1999).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2*. 서울: 이대 출판부.
- 장경은. (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전형식. (2001). 외국인들을 위한 일어 교육 웹 사이트 현황.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74-385.
- 최현섭, 최명환, 노명완, 신헌재, 박인기, 김창원, 최영환. (1997). *국어교육학개론*. 서울: 삼지원.
-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1999). *범용 한국어 교육 교재(초급)의 개발 사업보고서*.
- 현원숙. (2001).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74.
- 황인교. (1998).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9(2). 269-284.
- 황진영. (2001).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의 원리와 구현 방법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심영택 외 역(1995). *언어 교수의 기본 개념*). 도서출판 하우.
- Cho, Y-M, H-S Lee, H-M Sohn, S-O Sohn, C. Schulz. (200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2*. KLEAR, Univ. of Hawaii Press.
- Nunan, D. (1988)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Univ. Press.

216 손춘섭 · 김천갑 · 김광희 · 송인동 · 박재익

손춘섭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62)530-3130
이메일: csson@chonnam.ac.kr

김천갑

590-711 전북 남원시 광치동 720
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063)620-0135
이메일: kcg@tiger.seonam.ac.kr

김광희

545-703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3-1
광양보건대학 작업치료과
전화: (061)760-1477
이메일: khkim@kwangyang.ac.kr

박재익

606-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번지
고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051)400-2298
이메일: parkjake@yahoo.com

송인동

503-756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
호남신학대학
전화:(062)650-1607
이메일: isong@kornet.net

Received in July, 2002

Accepted in September, 2002